

# 한국職業靑少年과 一般靑少年의 勞動觀, 未來觀 및 獨斷主義와의 關係 연구\*

Attitudes toward Work and Time Perspective and  
Their Relationship to Dogmatism in Korean Adolescent  
Vocational and Non-Vocational Trainees\*

김 경 회\*\*

Kim, Kyung Hee

## ABSTRACT

The intention of this study was: 1) to standardize the Korean version of the Dogmatism Scale, 2) to examine whether environmental structure affects value systems such as attitudes toward work, time perspective and the personality dimension of dogmatism in adolescent vocational and non-vocational trainees, 3)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those value systems and group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and non-vocational trainees, 4) to observ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high-dogmatism and low-dogmatism subjects with regard to attitudes toward work and future time perspective. The subjects for the study included 841 adolescent vocational (226) and non-vocational (615) from vocational training centers, schools and universities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1) a questionnaire for attitudes toward work, 2) the Future Time Perspective (FTP) developed by Christiansen and 3) the Dogmatism Scal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behavior settings or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 type affect the formation of attitudes and of dogmatism in adolesce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dogmatism relates to future time perspectives. This differs from Rokeach's theoretical statements. Dogmatism in this study was related to time perspective, the relationships were optimistic in emotional areas, long-term in direction and concrete in structur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nd Rokeach's suggests further study. A "Psycho-Environmental Model" for the formation of value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d earlier research of the author were discussed.

---

\* 본 연구는 産學協同財團의 연구조정비로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1. 序 論

本 研究의 主題인 獨斷主義 (dogmatism)는 Rokeach가 그의 著書인 “The Open and closed mind” (1960)에서 “독단주의 척도” (Dogmatism Scale)를 소개한 이래, 性格心理學者의 많은 關心을 끌어왔으며 이에 관한 수천에 달하는 研究報告書들이 出版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研究되지 않고 있다.

이 研究는 本 研究者가 行한 한국 職業靑少年의 勞動觀과 未來觀에 關한 環境心理學의 研究(1981) 結果를 기초로 하여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理論的 및 實際的인 目的을 가지고 試圖되었다. 理論的으로, 獨斷主義 尺度를 標準化하고, 獨斷主義와 勞動觀 및 時間展望 등의 價値觀과의 關係와 環境의 構造的 特性과의 相關을 分析하며, 職業靑少年과 一般靑少年間의 價値觀의 差異點을 糾明하여 靑少年의 價値觀 形成에 關한 “環境-心理-모델”을 發達시키고자 한다.

實際的으로, 本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職業靑少年을 包含한 靑少年 指導의 方向과 대책을 樹立하는데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 2. 理論的 背景 및 研究傾向

### 2.1 獨斷主義 尺度의 理論的 背景

독단주의 척도는 性格의 認知理論에 根據하여 構成된 것이다. Ehrlich(1979)가 指摘하고 있듯이, 이 尺度는 精神分析學에 기초한 專制主義的 要素와 一般的으로 看過되어 온 Lewin의 性格理論의 要素를 包含하고 있다.

독단주의 척도의 기초單位는 信念-非信念(belief-disbelief)體系이다. 信念體系는 “個人이 特定한 時間에 그가 살고 있는 世界에서 眞實로 認定하는 모든 信念, 갖춤, 期待 또는 意識的, 無意識的 假說을 表象하는 것”(Rokeach, 1960, p.33)으로 定義될 수 있으며, 非信念體系는 個人이 特定한 時間에 그릇된 것으로 拒絕하는 意識的, 無意識的 期待, 갖춤 및 모든 不信을 包含한다 (Rokeach, 1960, p.32).

Rokeach는 信念-非信念 體系를 세가지 次元으로 보았다. 즉 처음에는 時間展望(time perspective)으로, 그후에는 개방성-폐쇄성으로, 그리고 중추성-말초성으로 보았다.

Rokeach는 時間展望을 과거, 현재, 미래와 그들이 서로 關連되어 있는 方法에 대한 個人의 信念에 關한 것으로 보고 있다. 時間展望은 좁은 것에서 넓은 것에 이르는 多樣한 것으로 假定되며 과거, 현재, 미래는 信念-非信念 體系內에서 表象된다. 具體的으로 어떤 사람이 時間을 自己와 關계된 것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時間展望은 넓은 것으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強調한다면 그 사람의 時間展望은 좁은 것으로 看做된다.

時間展望은 信念-非信念體系의 獨立적이고 組織된 特徵으로 보다는 原始的 信念의 한 形態로 Rokeach는 보고 있다. 時間展望에 대해서는 김정희(1981b)가 잘 要約해 놓고 있다.

Rokeach는 信念-非信念體系의 개방성-폐쇄성은 中樞的 信念의 構造와 內容에 反映된다고 假定했다. 特히 中樞的-末稍的 次元의 中樞性 程度에 따라 다섯가지 類型을 A, B, C, D, E로 나누었다.

A型은 가장 中樞的이고 불변하며 E型은 가장 不合理하고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다.

信念—非信念體系에서 世界를 根本的으로 敵對的으로 解釋하고, 人間은 不親切하고 拒絕的인 것으로 知覺되며, 現在가 否定되고 過去나 未來가 強調되고 未來가 不確實하며 自己가 否定的일 때 폐쇄적·독단적이다.

Rokeach는 個人的인 개방성—폐쇄성의 水準을 나타내는 質問紙를 모아서 여러번의 檢査를 거쳐서 理論的으로 타당하고 尺度化하는데 만족할만한 基本적 準據를 수집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40개의 問項으로 構成된 檢査를 만들어 이를 “독단주의 척도”라 命名했다.

## 2.2. 心理學的 變인들과의 關係研究들

왜 어떤 사람은 개방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폐쇄적인가?,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은 비교적 영속적인 認知構造인가?

Rokeach가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問題에 대한 對答은 이 방면의 研究나 理論이 거의 없기 때문에 實驗的인 段階인 것이다.

개방성—폐쇄성을 認知體系의 變化로 보고 獨斷主義를 變化에 대한 저항과 學業遂行, 自我概念, 他人에 對한 態度, 知覺의 精確性, 未來觀과 상관지어 본 一連의 研究들은 一貫性있는 연구결과를 產出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結果를 概觀해 보기로 하자.

大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獨斷主義와 學業수행과의 關係를 糾明하려 했던 Ehrlich(1961, a.b, 1971), Frumkin(1961), Zagana와 Zurcher(1965), White와 Alter(1962), Rokeach와 Norell(1966)은 負的인 相關을, Baker(1964)는 正的인 相關을 발견했다. 한편 Christensen(1963) 및 Costin(1965)은 아무런 相關을 얻지 못했다.

變化의 受容에 관한 測定研究에서 Pyron과 Lamb(1967)은 폐쇄적일수록 變化에 대한 拒否程度가 더 컸다는 것을 알았다. Strauss와 Schiffman(1968)은 독단주의 척도와 EPPS(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의 變화욕구 점수와, 그리고 Cattell의 16 PF 질문지 Q1(보수주의)間에 意味있는 相關을 발견했다.

Vacciano, Strauss 그리고 Schiffman(1968)은 독단적인 사람은 自尊心, 自己受容, 자기만족이 缺如되어 있고, 個人的인 價値나 適當感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信念과 非信念의 不一致가 크면 클수록 拒否現象이 더 클 것이라고 한 Rokeach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폐쇄성과 정신병자에 대한 偏見 間의 關係를 본 Rubovits와 Maehr(1973), Terhune(1964), Peabody(1961)는 두 변인 間에 正的인 相關을 報告하고 있다.

對人關係와 개방성—폐쇄성과의 關係를 集中的으로 研究했던 Rosenfeld와 Nauman(1969)은 독단적인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의 相互作用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다.

Hamilton(1971), Lee와 Ehrlich(1977), Qhnmacht와 Muro(1967) 및 Pannes(1963)의 연구에서 肯定的인 自己態度는 개방성—폐쇄성 수준과 無關하거나, 또는 다만 負的으로 相關이 있음이 밝혀졌다.

## 2.3. 問題提起

지금까지의 理論的인 考察에 根據하면 독단적 性格은 時間展望의 態度와 相關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독단주의가 個人的 價値觀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接近해 볼 수 있고, 또 個人이 屬해 있는 集團의 性格과, 그에 근거하여 독단주의 및 가치관과의 관계도 糾明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遂行되었던 연구들은 大學生들을 對象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의 傾向을 알아보는 것과 또 이러한 집단과 대학생집단과 比較해 볼 必要性이 要求된다.

本 研究는 職業靑少年과 이들과 環境構造가 다른 一般靑少年 및 大學生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단주의 程度와 勞動觀 및 時間展望의 一種인 未來觀을 把握하여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所與되어 있는 집단의 構造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糾明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研究들이 國內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本 研究는 探索的인 性格을 갖게 된다.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提起될 수 있을 것이다.

### 2.3.1. 環境변인의 側面에서

機關(직업학교, 일반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 독단주의, 노동관 및 未來觀에 差異가 있을까?

### 2.3.2. 個人的 側面에서

(1) 독단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間에 노동관, 미래관에 차이가 있을까?

## 3. 研究方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戰略으로서 ① 適切한 집단의 被驗者의 선발, ② 독단주의 척도의 表準化 作業, ③ 노동관과 미래관을 測定하는 道具의 선택, ④ 蒐集된 資料의 分析과 변인들 間의 關係의 檢證이 고려되었다.

### 3.1. 調查對象

本 研究의 조사대상은 직업청소년 집단으로 정수 직업훈련원, 서울 종합직업훈련원, 서울 여자 직업훈련원에서 2년째 훈련받고 있는 靑少年과 一般靑少年 집단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대학생집단으로 연세대학교(상경대, 문과대, 공대, 가정대) 2.3학년 남녀학생이었다. 각 집단에 종사한 “2년”과 성별은 피험자 선발의 준거로 사용되었다. 집단별로 본 調查對象者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

집단별 성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생	계
남	159	153	204	516
여	67	156	102	325
계	226	309	306	841

### 3.2. 道具

本 研究에서 使用된 道具는 다음과 같다.

(1) 독단주의 척도: Ro-keach(1960)의 Dogmatism Scale(Form E)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사용(결과 참조).

(2) 노동관 파악을 위한 질문지: 김경희 - Eckensberger (1976)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질문지로 2개의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미래전망태도 척도: Christiansen (1959)이 제작한 것으로 7점척도로 된 8개의 문항과 1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된 檢査이다.

### 3.3. 節次

本 研究의 調査는 198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本 研究者와 2명의 자료수집원이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다. 독단주의 척도의 信賴度 再檢査를 위한 2次調査는 1984년 4월에 2일간 3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3.4. 分析方法

#### 3.4.1. 內容分析

노동관 및 미래관 질문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反應은 본 연구자와 2명의 연구조원이 함께 이전 연구(1981)를 기초하여 내용을 分析했다 (결과 참조). 3명간의 일치도는 .81 ~ .92였다.

#### 3.4.2 統計的 分析

독단주의 척도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문항분석과, 신뢰도( $\alpha$ ), 재검사 신뢰도(KD-21)를 각각 산출했다.

노동관과 미래관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反應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집단간의 차이 및 독단주의 점수와 노동관, 미래관과의 관계는  $x^2$ 검증을 실시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은 KAIST의 전산실에 의뢰하여 처리되었다.

## 4. 結果

本 研究의 結果를 기관별, 성별로 ① 독단주의 척도의 표준화, ② 노동관, ③ 미래관, ④ 독단주의와 노동관, 미래관과의 관계의 順序로 提示하겠다.

### 4.1. 독단주의 척도의 표준화

Rokeach의 Dogmatism Scale (Form E)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本 研究者는 이를 번역하여 心理學 교수 1명과 문항내용을 검토한 후에 표집대상에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척도로 되어 있다(부록 참조).

#### 4.1.1. 問項分析

841명의 調査對象자들이 각 문항에 反應한 頻度를 근거로 하여 총점을 산출하여 內的 合致度を 계산했다.

문항분석결과, 內的 合致도가 負的 (-)이고 10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여 40개 문항 가운데 23개의 문항이 선발되었다.

이의 검사 신뢰도는  $\alpha = .64$ 였다. 다음 표 2에 선발된 23개 문항의 內的 合致度 및 신뢰도를 提示하였다.

〈표 2〉 독단주의 척도의 내적합치도 및 신뢰도

* 문항번호	내적합치도	신뢰도	문항번호	내적합치도	신뢰도	문항번호	내적합치도	신뢰도
1	.15	.63	13	.24	.62	26	.22	.62
2	.24	.62	14	.24	.62	29	.18	.63
3	.13	.63	15	.24	.62	34	.22	.62
6	.25	.62	16	.19	.63	35	.28	.62
7	.20	.63	17	.18	.63	36	.22	.62
9	.36	.61	18	.20	.63	38	.18	.63
11	.16	.63	22	.27	.62	39	.25	.62
12	.13	.63	23	.19	.63			

\* 문항번호는 원척도의 번호임

이상의 23개 문항으로 최종검사를 만들어서 3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Kuder-Richardson -21 공식을 적용하여 재검사 신뢰도를 본 결과,  $\alpha = .640$ 이었다.

본 독단주의 척도의 가능한 최고점수는 138 점이다. 독단주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관별, 성별로 보면 표 3 과 같다.

〈표 3〉 독단주의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M	100.30	100.57	95.85	98.50	95.33	92.52
S D	10.80	11.24	10.15	9.03	9.85	8.90
전체 M	100.38		97.19		94.40	
전체 S D	10.91		9.67		9.62	

F = 46.381

P < .0001

#### 4.2. 勞動觀

노동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職業을 선택하는 理由, 노동(일)과 돈에 대한 態度, 自身과 동료들의 업적수행에 대한 態度를 알아 보았다.

##### 4.2.1. 職業선택이유

현재 訓練을 받고 있는 직업(학생의 경우는 未來에 갖게 될)을 선택한 理由를 分析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세 기관에서 모두 性差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직업청소년집단의 남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는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 인데 비해서 일반청소년집단의 남녀는 모두 “취미에 맞아서” 직업을 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표 4> 직업 선택 이유

기 관 별 성 별	직업 청소년				일반 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직업선택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50	31.44	12	17.91	15	14.56	4	3.64	15	7.35	2	1.96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	50	31.44	13	19.40	16	15.54	20	18.18	22	10.78	3	2.95
취미에 맞아서	13	8.18	8	11.96	34	33.01	48	43.63	33	16.18	41	40.20
할수 없어서	7	4.40	9	13.43	14	13.59	7	6.36	13	6.37	10	9.80
전망이 밝아서	21	13.21	12	17.91	12	11.65	5	4.55	74	36.21	35	34.31
개인적 사정	18	11.32	13	19.40	12	11.65	26	23.64	47	23.04	11	10.78
계	159	100.00	67	100.00	103	100.00	110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18.052 P < .01				19.659 P < .005				32.630 P < .0001			

이러한 경향은 여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대학생집단의 남자는 “전망이 밝아서”, 여자는 “취미에 맞아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학생집단간의 직업선택의 이유에서 나타난 差異는 統計的으로 意味있는 것이다 ( $\chi^2 = 209.140, P < .0001$ ).

4.2.2. 勞動에 대한 態度

노동에 대한 견해를 內容分析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勞動에 대한 태도는 기관별, 성별에 따라 多樣性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업청소년의 男子는 무엇 보다는 勞動을 生活手段으로, 여자는 당위로 보는데 比하여 일반청소년집단의 男子는 生活手段과 人間의 特權으로, 女子는 自我實現, 生活手段, 當爲로 보고 있다. 한편 大學生은 男女모두 勞動을 自我實現, 生活手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의 기관별 差異는 대단히 意味있는 것이다 ( $\chi^2 = 48.079, P < .0001$ ).

4.2.3. 돈에 대한 態度

표 6에는 돈에 대한 태도를 內容分析하여 범주화시킨 결과를 提示하였다.

돈에 관해서는 기관間, 性別間에 差異없이 生活手段으로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었으며, 그 다음은 돈을 必要惡으로 보는 順序로 나타나고 있다. 集團間的 이러한 傾向의 差異는 意味있다 ( $\chi^2 = 58.65, P < .0001$ ).

4.2.4. 自身 및 동료들의 일에 대한 態度

표 7과 표 8에 各各 提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自身 및 동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흥미 있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의 일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직업청소년집단의 남여는

<표 5> 노동 개념

노동개념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사회 참여 수단	5	3.16	1	1.53	2	2.00	7	6.42	10	4.91	7	6.86		
생활 수단	46	29.11	12	18.18	26	26.00	23	21.10	48	23.53	24	23.53		
자아 실현	42	26.58	15	22.73	16	16.00	24	22.02	67	32.84	41	40.20		
당 위	33	20.89	20	30.30	14	14.00	23	21.10	17	8.33	11	10.78		
인간의 특권	7	4.43	6	9.09	25	25.00	8	7.34	30	14.71	3	2.94		
생의 원동력	6	3.80	9	13.64	7	7.00	9	8.26	14	6.86	14	13.73		
기 타	19	12.03	3	4.55	10	10.00	15	13.76	18	8.82	2	1.96		
계	158	100.00	66	100.00	100	100.00	109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15.762 P < .05				16.401 P < .05				19.086 P < .005					

모두 “꽤 만족하게”, 대학생집단의 남여는 만족하는 편으로 評價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청소년집단의 남여 모두 만족하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청소년 집단의 이러한 評價傾向은 동료들의 일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직업청소년집단의 여자 및 대학생집단의 남여 모두 동료들의 일에 대한 誠意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 집단가운데 직업청소년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自身の 일에 대한 誠意도를 가장 만족하

<표 6> 돈에 대한 개념

돈에대한개념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지 상 목 표	19	11.95	3	4.48	7	6.48	3	2.54	12	5.88	3	2.94		
생활 수단	58	36.48	36	53.72	40	37.03	51	43.24	100	49.02	62	60.79		
노동의 대가	8	5.03	3	4.48	1	.93	2	1.69	7	3.43	5	4.90		
다 다 익 선	9	5.66	3	4.48	17	15.74	19	16.10	32	15.69	9	8.82		
가 치 기 준	8	5.03	2	2.99	8	7.41	6	5.08	22	10.78	6	5.88		
필 요 악	50	31.45	18	26.86	30	27.78	35	29.66	27	13.24	14	13.73		
기 타	7	4.40	2	2.99	5	4.63	2	1.69	4	1.96	3	2.94		
계	159	100.00	67	100.00	108	100.00	118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7.244 n. s				9.107 n. s				10.480 n. s					



<표 7>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

기 관 별 성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자신의일에대한성의도	n	%	n	%	n	%	n	%	n	%	n	%
대단히 불만이다.	2	1.26	1	1.49	13	8.50	11	7.05	17	8.33	5	4.90
불만스런 편이다.	5	3.14	6	8.96	25	16.34	26	16.67	38	18.63	21	20.59
그저 그렇다.	30	18.87	9	13.43	47	30.71	67	42.95	38	18.63	28	27.45
만족하는 편이다.	28	17.61	16	23.88	33	21.57	29	18.59	57	27.94	33	32.35
대단히 만족한다.	94	59.12	35	52.24	35	22.88	23	14.74	54	26.47	15	14.71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x^2$	5.439 n.s				6.407 n.s				8.328 n.s			

게 評價하고 있다 (  $F=50.24, P<.0001$  ). 全體的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성의도를 동료들의 성의도보다 더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  $F=37.70, P<.0001$  ).

<표 8> 동료들의 일에 대한 성의도

기 관 별 성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동료들의일에대한성의도	n	%	n	%	n	%	n	%	n	%	n	%
대단히 불만이다.	5	3.14	4	5.97	21	13.73	10	6.41	16	7.84	5	4.91
불만스런 편이다.	12	7.55	6	8.96	30	19.61	23	14.74	34	16.67	19	18.63
그저 그렇다.	27	16.98	23	34.32	46	30.06	73	46.79	77	37.75	38	37.25
만족하는 편이다.	39	24.53	12	17.91	34	22.22	35	22.44	56	27.45	33	32.35
대단히 만족하다.	76	47.80	22	32.84	22	14.38	15	9.62	21	10.29	7	6.86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x^2$	10.822 $P<.05$				12.265 $p<.05$				2.449 n.s			

#### 4.3. 未來觀

미래에 대한 態度 및 未來展望의 構造를 알아보기 위하여 未來展望에 대한 Christiansen의 질문지에 반응한 것을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3.1. 가까운 未來에 대한 態度

가까운 미래에 대한 태도를 집단별로 보면, 직업청소년집단과 대학생 집단은 일반청소년집단보다 展望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  $F=30.10, P<.0001$  ).

<표 9> 가까운 미래에 대한 태도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성 별	n	%	n	%	n	%	n	%	n	%	n	%
가까운미래에대한태도												
전망이대단히나쁘다.	3	1.89	5	7.46	17	11.11	8	5.13	13	6.37	3	2.94
전망이나쁜편이다.	4	2.52	5	7.46	20	13.07	20	12.82	15	7.35	8	7.84
그저 그렇다.	29	18.24	17	25.37	57	37.25	57	36.53	36	17.65	33	33.35
전망이좋은편이다.	65	40.87	25	37.32	45	29.41	44	28.21	49	43.63	44	43.14
전망이대단히좋다.	58	36.48	15	22.39	14	9.16	27	17.31	51	25.00	14	13.73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11.263 P<.05				7.345 n. s				12.148 P<.05			

性別로 보면 직업청소년집단에서 男子는 女子보다 未來展望을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청소년집단의 남자는 여자보다 未來展望을 나쁜 편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학생집단은 직업청소년집단과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4.3.2. 未來의 不幸豫想度

미래에 失職하거나 作業不能하게 될 것에 대한 豫想度は 機關에 따라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F = 7.52, P<.001).

즉 직업청소년집단은 일반청소년 및 대학생집단에 비해서 未來에 失職하거나 作業不能하게 될 것을 더 예상하고 있다.

性別로 보면 세 집단에서 모두 性差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업청소년집단과 대학생집단의 남자는 여자보다 미래의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표10 참조).

<표 10> 미래의 불행 예상도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성 별	n	%	n	%	n	%	n	%	n	%	n	%
불행예상도												
전혀안한다.	52	32.70	15	22.39	46	30.07	49	31.40	64	31.37	28	27.45
거의 안한다.	29	18.24	19	28.36	39	25.49	46	29.49	75	36.76	40	39.22
그저 그렇다.	16	10.06	6	8.96	20	13.07	15	9.62	13	6.37	10	9.80
하는 편이다.	37	23.28	18	26.86	34	22.22	37	23.72	45	22.06	20	19.61
대단히 자주한다.	25	15.72	9	13.43	14	9.15	9	5.77	7	3.44	4	3.92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4.439 n. s				2.570 n. s				5.267 n. s			

4.3.3. 未來 計劃 妨害 豫想度

<표 11> 계획 방해 예상도

기 관 별 성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계획방해예상도												
전혀 안한다.	21	13.21	6	8.96	15	9.80	9	5.77	8	3.92	5	4.90
거의 안한다.	28	17.61	8	11.94	23	15.03	34	21.79	37	18.14	22	21.57
그저 그렇다.	15	9.43	6	8.96	12	7.85	20	12.82	8	3.92	8	7.84
하는 편이다.	66	41.51	34	50.74	79	51.63	77	49.36	99	48.53	45	44.12
대단히 자주한다.	29	18.24	13	19.40	24	15.69	16	10.26	52	25.49	22	21.57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2.620				7.220				3.283			
	n.s				n.s				n.s			

계획을 세울때 妨害받을 수도 있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考慮하는 程度는 機關間에 差異를 보인다 (F=4.83, P<.01). 즉 일반청소년집단이 계획방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편이며 직업청소년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妨害物을 덜 예상한다(표 11 참조).

性差는 意味있는것은 아니지만 직업청소년집단의 女子는 男子보다 妨害물 豫상을 더 하는데 비하여, 일반청소년집단과 대학생집단에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계획방해豫상을 더 하는 傾向이 있다.

4.3.4. 未來에 對한 一般的 態度

一般的으로 未來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分析한 結果를 다음 표 12에 提示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직업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및 대학생집단에 비하여 未來에 대하여 中立的인 態度를 보이는 傾向이 있으며 대학생집단이 낙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性差는 일반청소년집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女子는 男子보다 未來를 樂觀的으로 展望하고 있으나, 직업청소년 집단과 대학생집단에서는 男子가 더 樂觀的으로 展望하고 있다.

<표 12> 미래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기 관 별 성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미래에 대한 일반적태도												
대단히 비관적이다.	15	9.43	6	8.96	21	13.73	7	4.49	16	7.84	6	5.88
비관적인 편이다.	8	5.04	8	11.94	31	20.26	11	7.05	28	13.73	6	5.88
보통이다.	43	27.04	23	34.32	31	20.26	35	22.44	32	15.69	25	24.52
낙관적인 편이다.	36	22.64	16	23.88	40	26.14	65	41.66	88	43.13	38	37.25
대단히 낙관적이다.	57	35.86	14	20.90	30	19.61	38	24.36	40	19.61	27	26.47
계	159	100.00	67	100.00	153	100.00	156	100.00	204	100.00	102	100.00
$\chi^2$	7.433				23.633				9.005			
	n.s				P<.0001				n.s			

4.3.5 未來 展望 構造

표 13에 提示된바와 같이, 기관별로 보아 세 집단 모두 非具體的인 未來展望을 普及하고 있으며 程度와 樣相에 差異를 보이고 있다. 職業청소년집단은 일반청소년집단과 대학생집단에 비해서 未來를 非具體的이지만 樂觀的으로 展望하고 있는데 이러한 機關들의 差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 $F = 6.37, P < .005$ ).

性差도 나타나고 있는 바, 職業청소년집단의 男子는 非具體的이고 樂觀的으로 女子는 非具體的이며, 덜 樂觀的인 것으로 未來를 展望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一般青少年집단의 男子는 未來를 非具體的으로 展望하고 있는데 비하여 女子는 具體的이지만 短期的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집단에서의 性差는 일반청소년집단과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보편적으로 男子가 女子보다 미래를 더 樂觀하는 傾向이 있다.

<표 13> 미래 전망 구조

기 관 별 성 별	직업 청소년				일반 청소년				대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구체적-낙관적	28	17.61	5	7.47	10	7.52	15	11.20	31	15.19	13	12.77
구체적-장기적	3	1.89	1	1.49	10	7.52	2	1.49	8	3.93	6	5.95
구체적-단기적	32	20.13	17	25.37	36	27.07	59	44.02	51	25.00	38	37.62
비구체적-비관적	4	2.52	1	1.49	4	3.01	5	3.74	9	4.41	2	1.98
비구체적-낙관적	55	34.58	9	13.43	15	11.28	11	8.21	48	23.53	9	8.91
비구체적	37	23.27	34	50.75	58	43.60	42	31.34	57	27.94	33	32.67
계	159	100.00	67	100.00	133	100.00	134	100.00	204	100.00	101	100.00
$\chi^2$	24.106 P < .001				16.105 P < .05				15.260 P < .05			

4.4. 獨斷主義와 勞動觀 및 未來觀과의 相關

독단주의와 노동관 및 미래관과의 관계를 把握하기 위해서 독단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25%와 가장 낮은 25%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상집단과 하집단을 만들어 노동관과 미래관과 상관을 보았다. 여기서는 기관별로만 考察하였다.

4.4.1. 獨斷主義와 勞動觀

4.4.1.1. 독단주의와 職業選擇理由

표 14에 提示된 바와 같이, 세 집단에서 모두 독단주의 상·하집단과 직업선택을 하는 理由間에 意味있는 差異가 없다. 傾向으로 보아 職業청소년 집단 的 下集團은 사회경험을 얻기 위해서, 上集團은 돈을 벌기 위해서 職業을 선택한다. 일반청소년집단 的 上·下集團은 모두 취미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집단 的 上下집단은 전망이 밝은 理由로 職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독단주의와 직업선택 이유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n	%	n	%	n	%	n	%	n	%	n	%
직업선택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18	32.73	13	22.81	6	11.32	5	10.42	4	5.41	7	8.97
사회경험을얻기위해서	14	25.45	18	31.57	10	18.87	9	18.75	5	6.75	8	10.26
취미에 맞아서	8	14.55	3	5.26	18	33.96	17	35.42	12	16.22	18	23.08
할 수 없어서	3	5.45	6	10.53	5	9.43	3	6.25	7	9.46	8	10.26
전망이 밝아서	7	12.73	4	7.02	4	7.55	4	8.33	32	43.24	21	26.92
개인적 사정	5	9.09	13	22.81	10	18.87	10	20.83	14	18.92	16	20.51
계	55	100.00	57	100.00	53	100.00	48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10.258				2.993				6.601			
	n.s				n.s				n.s			

4.4.1.2. 獨斷主義와 勞動에 대한 態度

독단주의와 노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세 집단에서 모두 독단주의 上·下 집단간에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5에서 보면, 일반청소년집단의 상하집단 모두와 직업청소년의 下집단은 노동을 生活수단으로 보는 客觀的 有効性에 指向되어 있는데 比하여, 직업청소년의 上집단과 大學生의 上·하집단은 모두 노동을 自我實現으로 생각하는 主觀的 有効性에 指向되어 있다.

<표 15> 독단주의와 노동개념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n	%	n	%	n	%	n	%	n	%	n	%
노동개념												
사회참여수단	1	1.85	1	1.79	3	5.36	1	2.23	1	1.36	2	2.56
생활수단	10	18.52	15	26.79	19	33.93	11	25.00	16	21.62	24	30.77
자아실현	22	40.74	11	19.64	7	12.50	10	22.73	24	32.43	31	39.74
당 위	9	16.67	13	23.21	8	14.29	5	11.36	8	10.81	5	6.41
인간의특권	6	11.11	4	7.14	9	16.07	9	20.45	9	12.16	5	6.41
생의원동력	1	1.85	5	8.93	4	7.14	4	9.09	8	10.81	9	11.55
기 타	5	9.26	7	12.50	6	10.71	4	9.09	8	10.81	2	2.56
계	54	100.00	55	100.00	55	100.00	44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8.760				3.363				8.219			
	n.s				n.s				n.s			

4.4.1.3. 獨斷主義와 돈에 대한 態度

돈에 대한 태도와 독단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에 提示된 바와 같이, 세 집단에서 모두 돈을 生活手段으로 보고 있다.

<표 16> 독단주의와 돈에 대한 개념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돈에대한 개념	n	%	n	%	n	%	n	%	n	%	n	%
지 상 목 표	5	9.09	6	10.53	4	6.67	2	4.17	6	8.11	5	6.41
생 활 수 단	25	45.45	21	36.84	20	33.33	18	37.50	41	55.41	43	55.13
노 동 의 대 가	3	6.46	10	17.54	5	8.33	1	2.08	2	2.70	5	6.41
다 나 익 선	2	3.64	4	7.02	9	15.00	13	27.08	4	5.41	10	12.82
가 치 기 준	3	5.45	2	3.51	2	3.34	3	6.25	8	10.81	6	7.69
필 요 악	17	30.91	14	24.56	20	33.33	11	22.92	13	17.56	9	11.54
계	55	100.00	57	100.00	60	100.00	48	100.00	74	100.00		100.00
$x^2$	5.514 n.s				5.970 n.s				5.288 n.s			

4.4.1.4. 獨斷主義와 自身 및 同僚들의 일에 대한 態度

自身과 同僚들의 일에 대한 誠意도를 評價한 結果를 다음 표 17 과 표 18에 各各 提示하였다.

보편적으로 獨斷主義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것은 만족스럽게, 同僚들의 일에 대한 것은 덜 만족스럽게 評價하고 있다.

이러한 差異는 통계적 意義는 없는 示唆的인 것일 뿐이다.

<표 17> 독단주의와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자신의일에대한성의도	n	%	n	%	n	%	n	%	n	%	n	%
대단히 불만이다.	3	5.45	2	3.51	4	5.33	6	8.45	6	8.11	8	10.26
불만스런 편이다.	1	1.82	2	3.51	9	12.00	12	16.90	12	16.22	18	23.08
그저 그렇다.	5	9.09	17	29.82	25	33.33	26	36.62	17	22.97	13	16.67
만족하는 편이다.	11	20.00	12	21.05	20	26.27	12	16.90	20	27.02	25	32.04
대단히 만족한다.	35	63.64	24	42.11	17	22.67	15	21.13	19	25.68	14	17.95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x^2$	12.052 P < .05				2.866 n.s				3.229 n.s			

다만 직업청소년집단에서는 이러한 傾向은 統計的으로 대단히 意味있는 差異를 보여 준다.  
 職業青少年集團의 上集團은 一般青少年集團의 上集團에 比해서 自身과 同僚들의 일에 대한 誠意度를 一貫性있게 滿足하게 評價하고 있다.

<표 18> 독단주의와 동료들의 일에 대한 태도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n	%	n	%	n	%	n	%	n	%	n	%
동료들의일에대한성인도												
대단히 불만이다.	3	5.45	4	7.02	4	5.34	9	12.68	7	9.46	7	8.97
불만스런 편이다.	6	10.91	4	7.02	13	17.33	8	11.27	10	13.51	12	15.38
그저 그렇다.	10	18.18	16	28.06	34	45.33	24	33.80	27	36.49	28	35.90
만족하는 편이다.	12	21.82	15	26.32	15	20.00	18	25.35	24	32.43	22	28.21
대단히 만족한다.	24	43.64	18	31.58	9	12.00	12	16.90	6	8.11	9	11.54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3.083 n.s				5.433 n.s				782 n.s			

4.4.2. 獨斷主義와 未來觀

4.4.2.1. 獨斷主義와 가까운 未來에 대한 態度

가까운 未來에 대해서 직업청소년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上集團은 下集團보다 좋게 展望하는데 比해서 一般青少年集團의 上集團은 下集團보다 가까운 未來에 대해서 中立的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傾向은 大學生集團에서만 統計的으로 의미있다 (표 19 참조).

<표 19> 독단주의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태도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n	%	n	%	n	%	n	%	n	%	n	%
미래에대한태도												
전망이 대단히나쁘다.	2	3.64	4	7.02	5	6.67	7	9.85	8	10.82	1	1.28
전망이 나쁜 편이다.	1	1.82	1	1.75	13	17.33	7	9.86	5	6.76	4	5.13
그저 그렇다.	8	14.55	16	28.07	20	26.67	26	36.62	10	13.51	8	23.08
전망이 좋은 편이다.	47	49.08	20	35.09	20	26.67	24	33.80	33	44.59	40	51.28
전망이 대단히 좋다.	33	30.91	16	28.07	17	22.66	7	9.86	18	24.32	15	19.23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4.372 n.s				7.342 n.s				11.132 P < .05			

4.4.2.2. 獨斷主義와 未來의 不幸豫想度

<표 20> 독단주의와 미래의 불행 예상도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독단주의	n	%	n	%	n	%	n	%	n	%	n	%
불행예상도												
전혀 안한다.	19	34.55	11	19.30	28	37.33	20	28.17	19	25.68	17	21.79
거의 안한다.	10	18.18	12	21.05	18	24.00	22	30.98	17	22.97	26	33.34
그저 그렇다.	4	7.27	9	15.79	8	10.67	10	14.08	9	12.16	12	15.38
하는 편이다.	15	27.27	12	21.05	12	16.00	16	22.54	22	29.73	21	26.92
대단히 자주한다.	7	12.73	13	22.81	9	12.00	3	4.23	7	9.46	2	2.57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x^2$	6.338				5.421				5.123			
	n.s				n.s				n.s			

未來에 失職하거나 作業不能하게 될 예상도는 上集團이 下集團에 比하여 “전혀 안하는” 극단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下集團은 不幸예상을 “하는 편”에서 부터 “거의 안하는 편”에 걸친 中立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표 20 참조).

4.4.2.3. 獨斷主義와 計劃妨害 豫想度

一般的으로 大學生集團을 제외하고 靑少年集團에서는 下集團이 上集團보다 계획방해물을 더 많이 考慮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學生집단에서 독단주의 上集團은 계획방해물을 대단히 자주 考慮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大學生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대단히 意義있는 것이다(표 21 참조).

<표 21> 독단주의와 계획방해 예상도

기 관 별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독단주의	n	%	n	%	n	%	n	%	n	%	n	%
계획방해예상도												
전혀 안한다.	7	12.73	7	12.28	8	10.67	5	7.04	4	5.41	6	7.69
거의 안한다.	8	14.55	6	10.53	10	13.33	14	19.72	12	16.22	15	19.23
그저 그렇다.	4	7.27	8	14.04	6	8.00	10	14.08	2	2.70	5	6.41
하는 편이다.	23	41.82	23	40.34	41	54.67	33	46.48	25	33.78	42	53.85
대단히 자주한다.	13	23.63	13	22.81	10	13.33	9	12.68	31	41.89	10	12.82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x^2$	1.584				3.169				16.995			
	n.s				n.s				P < .005			



4.4.2.4. 獨斷主義와 未來에 대한 一般的 態度

<표 22> 독단주의와 미래에 대한 일반적 태도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미래에대한일반적태도	n	%	n	%	n	%	n	%	n	%	n	%
대단히 비관적이다.	11	20.00	6	10.53	4	5.33	12	16.90	7	9.46	7	8.97
비관적인 편이다.	2	3.65	5	8.77	10	13.33	10	14.08	7	9.46	12	15.39
보통이다.	14	25.45	20	35.08	15	20.00	13	18.31	14	18.92	12	15.39
낙관적인 편이다.	14	25.45	11	19.30	21	28.01	21	29.58	28	37.84	36	46.15
대단히 낙관적이다.	14	25.45	15	26.32	25	33.33	25	34.72	18	24.32	11	14.10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4.175 n.s				6.538 n.s				4.067 n.s			

독단주의 上集團이 下集團보다 未來를 一般的으로 樂觀하고 있으며, 대단히 樂觀하거나 대단히 悲觀하는 極端化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一般青少年集團에서 보다 職業青少年集團에서 顯著하여서, 後者の 독단주의 上集團은 未來를 대단히 樂觀적으로 또는 대단히 悲觀적으로 展望하고 있다. 한편 직업청소년의 下集團은 中立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4.4.2.5. 獨斷主義와 未來展望構造

표 23에 提示된 바와 같이, 上集團은 下集團보다 未來를 具體적이고 樂觀적으로 展望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職業青少年에서보다 一般青少年集團인 高等學生집단에서 統計적으로 意義있게 뚜렷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생집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표 23> 독단주의와 미래 전망 구조

기 관 별 독단주의	직업청소년				일반청소년				대 학 생			
	상		하		상		하		상		하	
미래 전망 구조	n	%	n	%	n	%	n	%	n	%	n	%
구체적-낙관적	5	9.09	10	17.54	10	13.34	5	7.05	10	13.51	10	12.82
구체적-장기적	1	1.82	1	1.75	4	5.33	1	1.41	2	2.70	5	6.41
구체적-단기적	12	21.82	8	14.06	26	34.66	17	23.94	26	35.14	16	20.51
비구체적-비관적	1	1.82	1	1.75	2	2.68	2	2.82	1	1.35	5	6.41
비구체적-낙관적	20	36.36	14	24.56	7	9.33	10	14.08	16	21.62	14	17.95
비 구 체 적	16	29.09	23	40.35	26	34.66	36	51.70	19	25.67	28	35.90
계	55	100.00	57	100.00	75	100.00	71	100.00	74	100.00	78	100.00
$\chi^2$	7.591 n.s				13.297 P < .05				11.249 P < .05			

## 5. 論 議

本 研究에서 나타난 結果는 環境心理學의 理論에서 主張되고 있듯이, behavior setting이 勞動觀과 未來觀과 같은 個人的 價値觀과 相關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獨斷主義”라는 性格의 한 次元이 이러한 價値觀과 역시 相關이 있다는 Rokeach의 假說 및 先行研究와 一致하고 있다.

우선 職業을 選擇하는 理由에도 機關別로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서 職業靑少年集團은 돈을 벌기 위한 客觀的 有効性에, 一般靑少年은 취미에 맞기 때문인 主觀的 有効性에, 그리고 大學生은 展望이 밝기 때문인 客觀的 有効性에 指向되어 있다. 한편 獨斷主義 점수가 높은 集團은 客觀的 有効성에 낮은 集團은 主觀的 有効성에 指向되어 職業을 선택하고 있다. 職業靑少年集團은 獨단주의 上集團과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傾向은 勞動觀에서도 示唆되고 있다.

勞動은 需要充足, 곧 收入과 利益을 목적으로 指向하는 人間의 身體的, 精神的 活動을 일컫는다. 일찍이 Adam Smith (1929)는 勞動을 生産要因, 곧 “모든 商品交換價値의 眞正한 尺度”로 定義했는가 하면 Keynes (1929) 같은 學者는 Hegel 이나 Marcuse 등이 主張했던 人間實存의 特殊한 實習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職業靑少年, 一般靑少年 및 大學生은 모두 勞動을 生活手段으로 보는 것이 支配的이어서 Smith式의 勞動觀이 支持되는 것 같다. 그러나 集團間 差異는 興味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곧 職業靑少年은 生活手段 다음으로 自我實現으로, 一般靑少年은 人間의 特權, 自我實現으로, 그리고 大學生集團은 自我實現과 當爲같은 主觀的 有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Keynes式의 勞動觀도 支持되고 있는 것 같다.

本 研究의 結果는 職業靑少年集團을 對象으로 했던 김경희 (1981b)의 研究結果 및 實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했던 Qerter (1979)의 研究結果와도 一致되는 것이다.

獨斷主義 上集團은 勞動을 自我實現, 當爲로 보는데 비해서 下集團은 生活手段으로 보고 있어서 職業靑少年과 一般靑少年은 獨斷主義 上集團과, 大學生集團은 獨斷主義 下集團이 나타난 傾向과 一致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勞動과 關聯하여 具體的 對象인 돈에 대해서는 集團差, 性差없이 兩價的인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돈을 生活手段이나 必要惡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김경희 (1981b)의 結果와는 一致되는 것이지만, 西獨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Qerter와 그의 동료들 (1979)의 研究와는 相反되는 것이다. 西獨靑少年은 돈에 대해서 대단히 肯定的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獨斷的인 사람들은 돈을 生活手段으로 보는데 비해서 덜 獨단적인 사람은 多多益善이나 必要惡으로 보고 있다. 職業선택, 勞動觀, 돈에 대한 態度에서 職業靑少年이 보다 客觀的 有効성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態度들은 獨斷主義라는 性格 次元보다는 機關別 特性 및 性別과 더 意義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自身 및 他人들의 일에 대한 評價에서도 一致된다. 즉 職業靑少年은 客觀的 有効성에, 一般靑少年과 大學生은 主觀的 有効성에 指向되어 있다. 이러한 機關別 差異는 職業靑少年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 (1981b)의 研究結果와 一致되는 結果이다.

勞動觀에 관한 限, 職業靑少年은 經濟的으로, 一般靑少年은 心理的으로 指向되어 있다. 한편 獨斷的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主觀的 有効성에 指向되어 있으며 極端化 現象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未來를 조망하고, 未來에 失職하거나 作業不能과 같은 具體的 事象에 대한 見解에서 未來를 樂觀的으로 展望하는 本 研究結果는 青少年을 대상으로 했던 Mönks(1967)의 결과와 職業青少年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1981b)의 결과 및 大學生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1981a)의 研究와 一致되는 結果이다.

獨斷的인 사람들은 極端的인 態度를 가지는데 비해서 덜 독단적인 사람들은 中立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는 本 研究結果는 Pyron(1966), Zagona와 Kelly(1966)의 연구결과와 一致되는 것이다. Pyron은 獨斷主義와 古典的 對 大象의 美術에 대한 選好度를, Zagona와 Kelly는 古典音樂과 재즈와의 選好度를 評定하게 한 研究에서 獨斷主義 點數가 낮은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사람들보다 두 가지를 同等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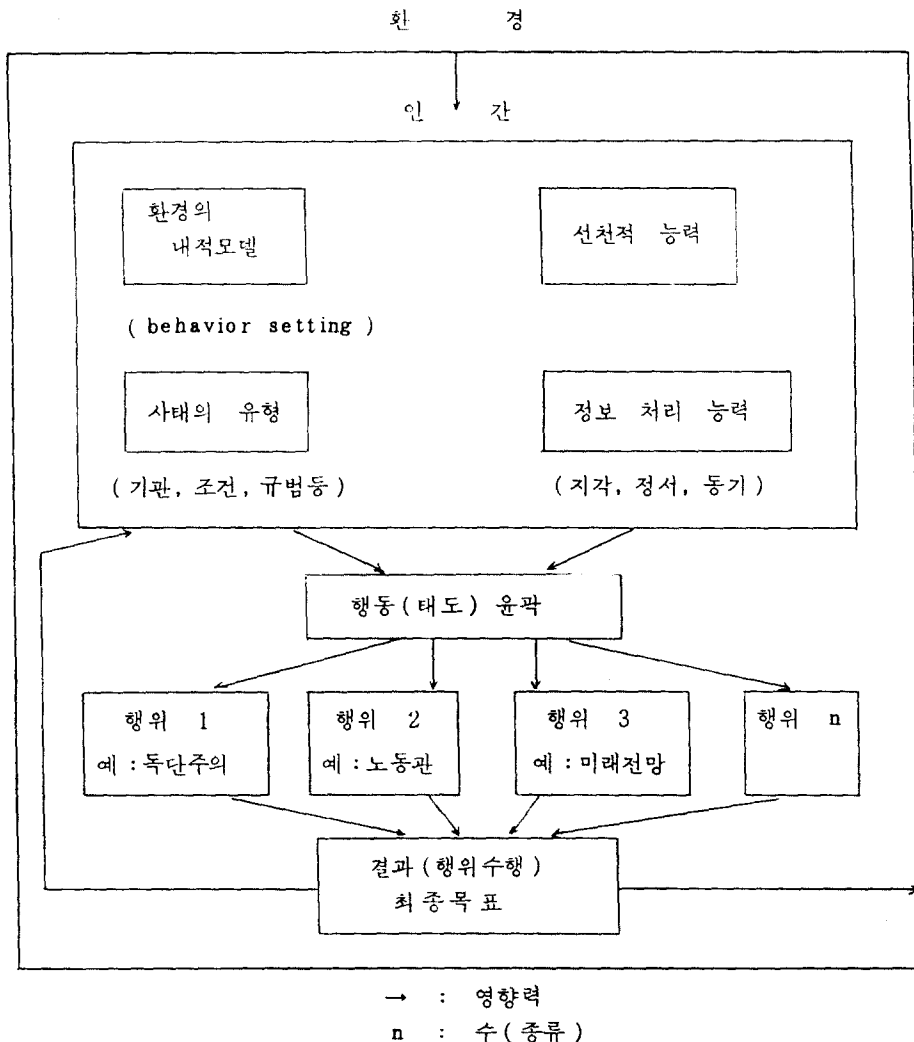
未來展望의 構造에서 나타난 本 研究結果는 몇가지 考慮해야 할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즉 職業青少年은 非具體的이고 樂觀的이고 短期的으로 未來를 展望하고 있는데, 이는 勞動階級의 時間展望은 가까운 未來를 言及하고 構造化되지 못했다고指摘한 Lane(1960)의主張과 一致하는 現象이다. 一般青少年과 大學生集團도 이와 비슷한 現象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現象은 動機가 낮은 것(McClelland et al., 1953; Teahan, 1958; Heckhausen, 1963), 精緒的 교란(Shybut, 1969) 및 독단주의(폐쇄성, Rokeach, 1960)등과 相關이 있다는 것이 報告된바 있다. 本 研究에서 흥미있게 나타난 現象은 機關의 特性을 反英하는 behavior setting이 勞動이나 돈과 같은 客觀的 對象에 대한 態度形成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Rokeach가指摘한 바와 같이, 獨斷主義는 未來展望과 같은 個人的 事象과 더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本 研究結果는 Rokeach의主張과는 그 方向이 다르다. 즉 Rokeach가 假定했던 것과는 反對로 本 研究에서 獨斷主義는 未來를 情緒的 側面에서 樂觀的으로, 方向에서 短期的이며, 具體的인 構造를 가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

以上的 結果들은 本 研究의 變인들의 發達的 側面 뿐 아니라 深層的 研究의 必要性을 示唆하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 考察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價値觀 形成의 환경-심리모델을 다음과 같이 構築해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가치관 형성의 환경-심리모델



6. 結 論

提起되었던 문제에 따라서 本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Rokeach의 독단주의 척도를 韓國版으로 表準化한 결과, 40개의 問題중 23개의 問題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었다.
2. 勞動觀은 機關, 性別 및 獨斷主義의 程度에 따라 다르다. 즉 職業靑少年은 客觀的 有效性-指向的인데 比하여, 一般靑少年은 主觀的 有効性에 指向되어 있다. 男子는 객관적 有効성에, 女子는

주관적 유효성 指向되어 있다. 한편 獨斷的인 사람은 主觀的 有効性에, 덜 獨斷的인 사람은 客觀的 有効性—指向的이다.

3. 自身 및 他人의 勞動 評價에서 機關別, 性別 및 獨斷主義 程度에 따라 差異가 있다. 즉 職業青少年은 一貫性있게 自身과 他人에 대해서 滿足하게, 一般青少年은 中立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男子는 自身과 他人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만족한 것으로 評價하며, 女子는 自身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他人에 대해서는 中立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獨斷的인 사람은 自身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他人에 대해서는 中立的으로 評價하며, 덜 독단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中立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4. 未來觀에 있어서 機關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性差는 없다. 一般的으로 職業青少年은 一般青少年보다 未來를 더 樂觀的으로 展望하고 있다.

5. 不幸의 主觀性과 客觀性에서 機關差와 獨斷主義의 差異는 있으나 性差는 없다. 즉 職業青少年은 具體的이고 個人的 문제와 直結된 事態를 더 많이 예상하는데 比해서 一般青少年은 客觀的인 계획방해를 더 많이 예상한다. 獨斷的인 사람은 덜 독단적인 사람보다 不幸을 예상하는데 極端化 現象을 보인다.

6. 未來展望의 構造에서 機關差, 性差, 그리고 獨斷主義 程度에 差異가 있다. 職業青少年은 非具體的—樂觀的으로, 一般青少年은 非具體的—短期的—덜 樂觀的으로 未來를 眺望하고 있다. 한편 男子는 非具體的—短期的—樂觀的으로, 女子는 具體的—短期的으로 眺望하고 있다. 독단적인 사람은 未來를 具體的—短期的—樂觀的인 편으로, 덜 독단적인 사람은 非具體的—短期的—悲觀的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勞動觀과 未來觀은 機關에 따라 다르며, 獨斷主義는 客觀的인 事象에 대한 態度보다는 未來觀과 같은 主觀的 事象과 더욱 관련되어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한국직업청소년의 노동관과 미래관에 관한 환경심리학적 연구. 연세논총, 1981(a), 18.
- 김경희, 대학생의 시간전망의 태도에 관한 일 연구(I). 행동과학연구, 1981(b), 5.
- Barker, S.R. A study of relationship of dogmatism to the retention of psychological concepts: A research note. *Journal of Human Relations*, 1964, 12, 311-313.
- Barker, R.G. *Ecological psychology: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 Bonier, R., & Rokeach, M. Open and closed belief system in relation of time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1957, 12, 377.
- Boreman, E. *Betriebspsychologie*. Wiesbaden: Betriebswirtschaftlicher Verlag, 1967.
- Christensen, C.M. A note on "Dogmatism and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3, 66, 75-75.

- Clifton, A.K. A theory of time perspective and a test of crucial hypothe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1971.
- Costin, F. Dogmatism and learning: A follow-up of contradictory finding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65, 59, 186-188.
- Ehrlich, H.J. Dogmatism and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62, 148-149.
- Ehrlich, H.J.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York: John & Wiley, 1973.
- Field, T.F. Relationship of dogmatism to self-disclosure. *Psychological Reports*, 1975, 36, 594.
- Hamilton, D.L. A comparative study of five methods of assessing self-esteem, dominance, and dogmatis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1, 31, 441-452.
- Heckhausen, H. *Hoffnung und Furcht in der Leistungsmotivation*. Meisenheim a. Glam, 1963.
- Lane, R.E. *Political ideology: Why the American common man believes what he does*. New York: Free Press, 1960.
- Lee, D.E., & Ehrlich, H.J. Sensory alienation and interpersonal constraints as a consequence of cognitive structure. *Psychological Reports*, 1977, 40, 840-842.
- Lewin, K.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35.
- McClelland, D.C., Atkinson, J.W., Clark, R.A., & Lowell, F.C.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Wiley, 1953.
- Monks, F.J. *Jugend und Zeit*. Munchen: Barth, 1967.
- Nowack, H. *Der Arbeitsbegriff der Wirtschaftswissenschaft*. Jb. f. No. u. St., 76, 1029.
- Nuttin, J.R. The future time perspective in human motivation and learning. *Acta Psychologica*, 1964, 23, 63-82.
- Oerter, R., Dreher, E., & Dreher, M. *Kognitive Sozialisation und subjektive Struktur*. Munchen: Oldenbourg, 1977.
- Oerter, R., & Walter, H. (Hrsg.) *Ökologie und Entwicklung: Mensch-Umwelt-Modelle in entwicklungspsychologischer Sicht*. Donauwörth: Auer, 1979.
- Ohnmacht, F.W., Muro, J.J. Self-acceptance: Some anxiety and cognitive style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967, 67, 235-239.
- Pannes, 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dogmatism in junior-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1963, 36, 419-426.
- Peabody, D. Attitude content and agreement set in scales of authoritarianism, dogmatism, anti-Semitism, and economic conservatis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63, 1-11.
- Pyron, B. Rejection of avant-garde art and the need for simple order. *Journal of Psychology*, 1966, 63, 159-178.

- Rokeach, M. The nature and meaning of dogmatism. *Psychological Review*, 1954, 61, 194-204.
- Rokeach, M., & Kemp C.G. Open and closed systems in relation to anxiety and childhood experience. In M. Rokeach, (Ed.)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60.
- Rokeach, M., & Norell, G. The nature of analysis and syntheses and some conditions in the classroom which facilitate or retard these cognitive process. *Michigan State University Report*, 1966.
- Rosenfeld, H.M., & Nauman, D.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l relationships among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1969, 37, 497-511.
- Rubovits, P.C., & Maehr, M.L. Pygmalion black and whi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3, 25, 210-218.
- Shybut, J. Time perspective,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69, 24, 26-27.
- Siegmán, A.W.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time perspective, time estimation, and impulse control in a group of young offenders and in a control group.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1, 25, 470-475.
- Toahan, J.E. Future time perspective, optimism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8, 58, 379-380.
- Terhune, K.W. Nationalism among foreign and American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64, 8, 256-270.
- Vacciano, R.B., Strauss, P.S., & Hochman, D. The open and closed mind: A review of dogmatism. *Psychological Bulletin*, 1969, 71, 261-273.
- Vacciano, R.B., Strauss, P.S., & Schiffman, D.C. Personality correlates of dogmat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68, 32, 83-85.
- White, B.J., & Alter, R.D. Dogmatism and examination performance.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1967, 58, 285-289.
- Zagona, S.V., & Zurcher, L.A. The relationship of verbal ability and other cognitive variables to the open-closed cognitive dimension. *Journal of Psychology*, 1965, 60, 213-219.
- Zagona, S.V., & Kelly, M.A. The resistance of the closed mind to a novel and complex audio-visual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66, 70, 123-131.

## 부록 : 독단주의 척도

다음은 여러가지 중요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각 문항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문항 앞에 +1, +2, +3, -1, -2, -3을 써 넣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 약간 찬성한다.

-1 ; 약간 반대한다.

+2 ; 대체로 찬성한다.

-2 ; 대체로 반대한다.

+3 ; 전적으로 찬성한다.

-3 ; 전적으로 반대한다.

- \_\_\_\_\_ 1. 주로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경멸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 \_\_\_\_\_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 \_\_\_\_\_ 3. 토론을 할 때 다른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여러 번 되풀이 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
- \_\_\_\_\_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이로운지를 알지 못한다.
- \_\_\_\_\_ 5. 요즈음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주로 생각하려 한다면, 아주 이기적이어야 할 것이다.
- \_\_\_\_\_ 6. 대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헛 산 것이다.
- \_\_\_\_\_ 7.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면 나는 그를 좋아할 것이다.
- \_\_\_\_\_ 8. 이 세상에 존재해 온 여러가지 철학사상 중에서 옳은 것은 한 가지 뿐일 것이다.
- \_\_\_\_\_ 9. 사람의 생활이 의미있게 되는 것은 이상이나 대의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 \_\_\_\_\_ 10.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 한가지 길은, 믿을만한 지도자나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 \_\_\_\_\_ 11. 나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수도 있다.
- \_\_\_\_\_ 12. 해야할 것은 너무 많은데, 할 시간이 없다.
- \_\_\_\_\_ 13. 살아있는 비겁자 보다는 죽는 영웅이 되는 것이 낫다.
- \_\_\_\_\_ 14. 구성원들 사이의 견해차를 지나치게 허용하는 집단은 오래 갈 수 없다.
- \_\_\_\_\_ 15. 자기가 반대하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믿는 생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 \_\_\_\_\_ 16. 나는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 또는 셰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을 가끔 갖는다.
- \_\_\_\_\_ 17. 모든 집단이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가치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떤 정치집단에게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 \_\_\_\_\_ 18.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전부를 얻던가 아니면 전부를 잃든가" 하는 도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 \_\_\_\_\_ 19.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 \_\_\_\_\_ 20. 여러가지 일에 대해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시시한 사람이 되기 쉽다.
- \_\_\_\_\_ 21. 우리의 정적(政敵)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측의 배반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
- \_\_\_\_\_ 22.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세상에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다.
- \_\_\_\_\_ 23. 이런 시대에는 자기의 반대편이 제시한 이념에 대해서 보다는, 자기편이 제시한 이념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 \_\_\_\_\_ 24.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 보통 나는 내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
- \_\_\_\_\_ 25. 나는 열띤 토론에 일단 휘말리게 되면 그만두질 못한다.
- \_\_\_\_\_ 26.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진실한 사람과, 진실치 못한 사람이다.
- \_\_\_\_\_ 27. 인간 그 자체는 무기력하고도 가련한 창조물이다.
- \_\_\_\_\_ 28. 미국과 소련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 \_\_\_\_\_ 29.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가는 아마도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_\_\_\_\_ 30. 최선의 통치형태는 가장 지식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이다.
- \_\_\_\_\_ 31. 현재는 모두 불행으로 가득차 있다. 의지할 것은 미래이다.
- \_\_\_\_\_ 32. 유감스럽게도 내가 사회문제와 도덕문제를 함께 토론했던 사람중에는,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 \_\_\_\_\_ 33.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는 아주 외로운 곳이다.
- \_\_\_\_\_ 34. 세상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견해를 들어본 후에 하는 것 바람직할 때도 있다.
- \_\_\_\_\_ 35.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공공연하게 비하는 것이다.
- \_\_\_\_\_ 36. 결국,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와같은 취미와 신념을 가진 친구나 동료를 찾는 것이다.
- \_\_\_\_\_ 37. 요즈음 출간된 사상들 중에는 인색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_\_\_\_\_ 38. 인간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 \_\_\_\_\_ 39.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완강히 부인하면, 그때마다 나는 피가 끓어 오른다.
- \_\_\_\_\_ 40. 종교상에 견해차가 있을 때,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